

# 구약논찬

제 17권 1호(통권 39집) 2011년 3월 31일

우 상혁(안양대) 이야기로서의 욱기 읽기 .....	83
본 연구는 마소라 본문의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통하여 욱에 대한 전통적인 명제(‘욕은 고난 받는 의인이다’)가 문제가 있음을 밝힌다. 저자는 욱기의 내러티브 발전 단계 - 배경(내레이션), 발단(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갈등(욕과 친구들의 대화), 절정(하나님과 욱의 대화), 마무리(내레이션) - 를 분석함으로써 욱기가 욱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에 대한 논쟁임을 주장한다.	
<b>Woo, Sang Hyuk</b> Is Job a Suffering Just? .....	83

# 이야기로서 욱기 읽기

우 상혁 | 안양대

## 1. 들어가는 말

오래 전부터 욱기에 대한 접근은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해석 또한 다양하다.<sup>1)</sup> 지금까지 대개 욱기 연구는 욱기의 형성 과정 혹은 욱기의 역사적 배경, 욱기와 고대 근동의 유사 문학 작품과 비교 등에 관심이 집중된 편이었다. 본 논문은 욱기 본문이 어떻게 형성 되었는가 혹은 욱기가 어떤 삶의 정황에 자리 잡고 있었는가를 살피기보다는, 우리에게 전해진 욱기를 하나의 완성되고 독립된 텍스트로 간주하여 연구하는 공시적 접근을 취하려 한다.<sup>2)</sup> 특별히 방법론

\* 이 논문은 2010년 9월 30일 제 85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1) 욱기 연구사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하 경택, “욱과 욱기의 문제: 욱기의 연구사에 관한 소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1 (2004), 47-76쪽. 욱기 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접근과 방법론적 논의는 다음 글이 참고할 만하다. L. Domisch, “The Book of Job and Ricoeur's Hermeneutics,” *Semeia* 19 (1981), 3-21쪽.

2) 욱기는 산문과 시문이라는 다른 두 개의 문학적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욱기의 주요 등장인물은 산문과 시문에 연속하여 나오는데, 이것은 산문과 시문을 분리해서 읽으며 안 되고 욱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욱기의 문학적 통일성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안 근조, 『지혜말씀으로 읽는 욱기』 (서울: 한들출판사, 2007), 221-222, 224-242쪽. 욱기를 완성된 문학 작품으로 연구하는 시도와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라. 하 경택, “욱과 욱기의 문제: 욱기의 연구사에 관한 소고,” 64-68쪽;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욱기 연구』 (서울:

으로서는 이미 구약성서 연구의 한 흐름을 형성한 내러티브 분석을 사용하여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욥기의 주제는 크게 네 개 정도로 나눌 수 있다.<sup>3)</sup> 첫째는 무고한 자 혹은 인내자의 고난,<sup>4)</sup> 둘째는 보상 교리,<sup>5)</sup> 셋째는 하나님의 성격과 인간과의 관계,<sup>6)</sup> 넷째는 반항자로의 욥이다.<sup>7)</sup> 이러한 다양한 해석이 나온 이유 중 하나는 델(K. Dell)의 지적대로 해석자들이 욥기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혹은 한 부분에 집착한 결과라 볼 수 있다.<sup>8)</sup> 위에 언급된 첫 번째 주제는 욥기의 산문 부분인 서론과 결론을 부각시킨 것이며, 둘째는 욥과 친구의 대화를 강조한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발언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넷째는 친구와 대화 속에 나타난 욥의 발언에 무게 중심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시도하는 내러티브 해석은 욥기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기에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경향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글을 통하여 욥기의 대부분이 비록 시가로 되어 있지만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임을 알 수 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욥기의 주제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관련된 지혜문학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성서학연구소, 2006), 82쪽, 각주14.

- 3) K. J. Dell, *The Book of Job as Sceptical Literature*, (Berlin: Walter de Gruyter, 1991), 5-56쪽. 델은 유대 랍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욥기 주제를 정리하였다.
- 4) 초대교회의 증언(약5: 11), 칠십인경, 교부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참조, 우 상혁, “마소라 본문 전통과 칠십인경에 따른 교부들의 욥기 주석,” 『구약논집』 4집 (2008년 12월), 94-110쪽; M. Witte, “The Greek Book of Job,” T. Kruger, M. Oeming, K. Schmid, C. Uehlinger (eds.), *Das Buch Hiob und seine Interpretationen*, (Beitrage zum Hiob-Symposium auf dem Monte Verita vom 14.-19. August 2005) (Zurich: Theologischer Verlag Zurich, 2007), 48-49쪽; J. Chrysostome, *Commentaire sur Job: Tome I* (Sources Chrétiennes 346), (Paris: Cerf, 1988), pro.I; *Commentaire sur Job: Tome II*, (Sources Chrétiennes 348), (Paris: Cerf, 1988), XLII.9, 14-16쪽. 라틴 교부인 로마의 그레고리 대제는 욥을 성인(Sanctus)으로 보았다. Grégoire le Grand, *Morales sur Job*, (Sources Chrétiennes 32bis) (Paris: Cerf, 1952, 1989), 14-16쪽. 그레고리 대제는 욥을 성인, 욥의 세 친구들을 이교도(haereticus)라 부르며, 욥과 세 친구들의 관계를 [성인 대 이교도]의 갈등 구조로 보았다.
- 5) Dell, 윗글, 35쪽.
- 6) 윗글, 40쪽.
- 7) 윗글, 50-52쪽.
- 8) 윗글, 32-55쪽.

## 2. 전달되는 이야기와 이야기 만들기

마르케라와 부르쾡은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소개하면서 ‘전달되는 이야기(histoire racontée)’와 ‘이야기 만들기(mise en récit)’를 구분해야 하며, 전달되는 이야기를 정확히 알기 위하여 이야기를 만든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sup>9)</sup> 이들은 언어학자 소쉬르의 개념을 빌려서 전달되는 이야기를 시니피에(signifié), 이야기 만들기를 시니피앙(signifiant)이라고 한다. 소쉬르는 ‘개념(concept)’과 ‘청각적 이미지(image acoustique)’를 각각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이라고 하였다.<sup>10)</sup> 소쉬르의 표현대로라면 시니피에는 내용 곧 의미이며 시니피앙은 그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소리를 가리킨다. 언어는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매개로 의미라 할 수 있는 개념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소리는 의미에 접근하는 통로이기에,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소리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내러티브 분석에 있어서 시니피앙 곧 청각적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은 전달되는 이야기를 담는 방식이다. 그 방식이란 이야기를 만드는 구성이나 구조를 가리킨다.<sup>11)</sup> 읍기에 적용하자면 읍기가 전하는 이야기의 의미가 시니피에, 이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 시니피앙이 된다. 따라서 독자 혹은 해석자의 입장에서는 읍기의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하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내러티브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만드는 형식적 틀은 건물의 주요 구조체가 되는 뼈대와 같다. 이러한 구조체 안에 화자의 내레이션<sup>12)</sup>과 등장인물의 발언이나 행동이 시간의 흐름과 특정 공간 안에서 일정 방식으로 어울려 이야기를 만든다. 이러한 이야기 구성요소들과 그 어울림을 읍기의 시니피앙, 그 시니피앙이 만들어내는 것이 시니피에가 된다. 먼저 읍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시니피앙을 살펴보겠다.

## 3. 읍기 만들기

화자의 내레이션<sup>12)</sup>과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발언은 모든 이야기에 등장하는

9) D. Marguerat et Y. Bourquin, *Pour lire les récits bibliques*, (Paris: Cerf, 1998) 25-29쪽.

10) 소쉬르는 ‘개념(concept)’과 ‘청각적 이미지’(image acoustique)를 각각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으로 발전시켰다. F.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 Rivage s, 1916, 1995), 97-99쪽.

11) D. Marguerat et Yvan Bourquin, *Pour lire les récits bibliques*, 25쪽.

공통된 요소이다. 하지만 그 배열과 배치에 있어서는 이야기마다 고유의 방식을 가진다. 욥기에서는 등장인물이 어떤 행동으로 사건을 만들기 보다는 등장인물이 말을 주고받음으로서 사건을 만든다. 이러한 등장인물의 대화와 화자의 내레이션은 욥기에서 [내레이션 - 대화 - 내레이션]이라는 배열을 가지고 있다.<sup>13)</sup> 이러한 배열이 앞서 말한 욥기의 구조체이다. 욥기에서 내레이션은 욥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며,<sup>14)</sup> 내용적(믿음, 자녀, 재산)으로도 욥 이야기의 처음과 끝은 내레이션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내레이션이 욥기의 주요 부분인 대화를 감싸고 있다. 욥 이야기의 구조적 특징은 무엇보다 대화 중심이다. 욥기는 여러 개의 대화가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가운데 [하나님과 사단]과 [욥과 친구들],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중심 구조물이다.<sup>15)</sup> 이 대화 구조물은 욥기의 주요 구성요소일 뿐 아니라 욥 이야기의 주요 흐름을 결정한다. 위 세 대화는 욥기에서 <발단 - 갈등 - 절정>라는 구조를 이루며, 이 대화 구조와 내레이션의 결합은 욥 이야기를 만든 방식으로서 욥기의 시니피앙이라고 할 수 있다. 플롯이란 “시간의 흐름 안에서 사건이 질서 있게 정리된 체계”<sup>16)</sup>로서 이야기의 내부 구조를 말한다.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의미 있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바로 거기에 이야기가 있다”<sup>17)</sup>고 할 만큼 이야기의 내부 구조 분석은 내러티브 방법론에 있어서 중요하다. 욥 이야기는 다섯 개의 구성단위로 만들어져 있으며, 대화와 내레이션

12) 시몬 바-에프라트(S. Bar-Efrat)는 이야기에서 화자의 역할에 대하여 의미 있는 설명을 한다. 이야기에서는 저자의 목소리를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화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하며, 화자와 이야기의 관계는 화자와 그림 혹은 작곡가와 곡의 관계가 아니라 화자는 이야기 안에 있으며 이야기를 만드는 중요한 구성적 요소의 하나라고 한다. S. Bar-Efrat, *Narrative Art in the Bible*, (London: T & T Clark International, 1989, 2004), 13쪽.

13) 이 구조는 산문과 시문이 결합된 욥기의 [산문-시문-산문] 구조와 대략 일치한다. 알터(R. Alter)에 따르면, 성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대화가 중심이며 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내레이션 역시 비록 보조적이면서도 가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 R.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81), 63-87쪽. 이러한 설명은 욥기에 그대로 적용된다. 욥 이야기에서 대화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만 내레이션 없이 대화만으로는 내용적, 형식적으로 완성된 이야기가 되기 어렵다.

14) 엄격히 말하면 욥기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등장인물의 발언을 인도하는 “욥이 말하였다”와 같은 것도 내레이션이기 때문이다.

15) 이외에도 [욥과 그의 종들], [욥과 그의 아내], [하나님과 욥의 친구] 역시 대화지만 그 분량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내용 역시 욥기의 전체 주제를 결정하기 않기에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

16) S. Bar-Efrat, *Narrative Art in the Bible*, 93쪽. 이러한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한다. 참조, P. Ricoeur, *Temps et récit 1* (Paris: Seuil, 1983), 69-79쪽.

17) D. Marguerat et Y. Bourquin, *Pour lire les récits bibliques*, 53쪽.

으로 된 욥기의 구성요소를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sup>18)</sup>

내레이션		대화		내레이션
1. 배경	2. 발단	3. 갈등	4. 절정	5. 마무리
[욥의 초기 상황] 1: 1-5	[천상회의] 욥 1: 6 - 2: 13	[논쟁] 욥 3: 1 - 31: 40 (37: 24)	[훈계] 욥 38: 1 - 42: 6	[욥의 말기 상황] 욥 42: 7-17
화자	하나님과 사단	욥과 친구들	하나님과 욥	화자

이 단위를 사건이라고 한다면, 앞서는 사건은 뒤따라오는 사건에 의해서 발전되며, 뒤따라오는 사건의 존재 근거는 앞서는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사건들의 연결 관계가 이야기를 형성하며 의미를 만들어 내기에 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다.<sup>19)</sup> 독자들에게 있어서 발단 부분인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는 내레이션 형식으로 된 배경을 필요로 한다. 아무런 사전 해설 없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 욥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독자에게 알린 후에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에 이어서 등장하는 [욥과 친구들] 대화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욥이 겪는 고통의 원인에 관한 것이기에, 그 원인의 발단이 된 [하나님과 사단]의 천상회의에 대한 설명을

18) 플롯 내부 구분에 있어서는 필자와 다르지만 하벨(N. Habel)과 클라인스(D. Clines) 역시 내러티브 분석을 시도하였다. 하벨은 새로운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내레이션(1: 1-5; 2: 11-13; 32: 1-5)을 중심으로 욥기 플롯을 삼 단계로 구분하였다. 1.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줌(1:1-2:10). 2. 욥이 하나님에게 항변함(2: 11 - 31: 40). 3.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함(32: 1 - 42: 17). N. C. Habel, *The Book of Job*, (Lodon: SCM Press, 1985), 25-35쪽. 클라인스는 욥기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 1. 제시부(1: 1 - 2: 10); 2. 갈등부(2: 11 - 31: 40); 3. 해결부(32: 1 - 42: 17). 이러한 구분의 근거는 각 부분은 그 내부에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끝맺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시부에는 욥의등장이 있으며, 욥은 “그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욥 2: 10)는 마무리가 있다. 갈등부는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며 욥의 말은 끝났다(욥 31: 40)로 정리된다. 해결부는 엘리후와 하나님이등장이 있고 욥의 마지막 일생으로 끝난다. D. J. A. Clines, *Job 1-20* (Dallas: Word, 1989), xxxv-xxxvi. 안 근조 역시 욥기 구조를 이야기 비평에 근거하여 여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1. 제시부 1: 1-5 기존경계. 2. 전개부 1: 6-12 기존경계에 대한 위협. 3. 갈등부 1: 13 - 37: 24 기본경계 붕괴. 4. 절정부 38: 1 - 41: 26[34]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5. 해결부 42: 1-6 욥의 깨달음을 선포. 6. 결과부 42: 7-17 새로운 경계. 안 근조, 『지혜말씀으로 읽는 욥기』, 240쪽.

19) D. Marguerat et Y. Bourquin, *Pour lire les récits bibliques*, 53-54쪽; S. Bar-Efrat, *Narrative Art in the Bible*, 93-95쪽.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욥과 친구들] 대화에 이어 등장하는 [하나님과 욥]의 대화는 길고 끝없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역할을 한다. 욥 이야기의 마지막 내레이션은 [하나님과 욥]의 대화뿐 아니라 욥 이야기의 전체를 정리한다. 이처럼 욥 이야기 내에 있는 각각의 이야기 단위는 이야기 논리에 따라서 서로 일관성 있게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욥기 플롯의 각 단위를 이야기 논리를 살펴보겠다.

#### 4. 욥기 구성요소

##### 1) 배경 내레이션: 욥 1장 1-5절

욥 이야기에서 배경의 역할을 하는 욥 1장 1-5절은 욥의 초기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욥의 믿음, 자녀, 재산 내역을 소개한다.<sup>20)</sup> 이러한 욥에 대한 기본 정보는 화자에 의해서 주어지며, 욥 이야기의 전체가 되기에 욥기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이다. 한 이야기의 전체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차후 전개되는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 된다. 다른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욥기에서도 화자의 내레이션은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이해하며 욥기 전체 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화자의 내레이션은 이야기 내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며 사실을 전달하는 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21)</sup> 이야기의 배경은 여러 요소를 담을 수 있지만 특별히 부각되어지는 내용이 있다. 부각되어진 배경 설명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줄거리나 이야기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된다. 욥기가 제공하는 배경은 욥이라는 인물에 집중되어 있지만 욥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는다.<sup>22)</sup> 욥기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욥의 신앙적 모습이다. 욥에 대한 배경 설명의 요지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욥에 대한 평가는 욥 1장 1절에 압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순전, 정직, 여호와 경외, 악을 멀리하는

20) 하벨은 대화의 틀을 형성하는 내레이션에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고 하며, 내레이션이 제공하는 정보는 플롯의 전개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N. C. Habel, *The Book of Job*, 26-27쪽.

21) D. Marguerat et Y. Bourquin, *Pour lire les récits bibliques*, 17쪽; A. Brenner, "Job the Pious? The Characterization of Job in the Narrative Framework of the Book," *JSOT* 43 (1989), 38쪽. 화자는 이야기 내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로 설정되어 있다. 독자가 화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성립될 수 없다.

22) 구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 가장 흔한 것이 등장인물의 족보이지만 욥기에는 없다.

것이다. 욥 1장 4-5절에서는 자녀들이 마음으로 지었을 수 있는 죄를 염려하는 욥의 모습을 통하여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상당히였음을 보여 주고, 욥 1장 2-3절에서는 욥의 자녀와 재물을 소개한다. 욥 1장 1-5절에서 소개한 내용은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사단] 대화의 전제가 된다.

## 2) 발단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욥 1장 6절 - 2장 13절

욥 1장 6절 - 2장 13절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이루어진 두 번의 천상회의(욥 1: 6 - 12; 2: 1-6)와 그에 따른 결과(욥 1: 13-22; 2: 7-10)<sup>23)</sup>, 욥 친구들의 등장(욥 2: 11-13)을 소개한다. 이 가운데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는 욥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사건의 발단이 되기에 눈여겨 보아야 한다. 사단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땅에서 욥과 같은 이가 없다고 한다.<sup>24)</sup> 사단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며 하나님을 자극하자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한다.<sup>25)</sup> 사단의 두 차례에 걸친 공격에 의해서 재산, 가족, 건강을 모두 잃어버린 욥의 불행이 시작한다. 사건의 발단이 되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회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둘째, 독자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내용을 알지만,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알지 못한다.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은 등장인물에게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sup>27)</sup> 이 두 가지 사실은 차후 전개되어지는 이야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어서

23) 욥 1: 21과 욥 2: 10에서 욥은 고통스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평 대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두 구절에서 보여주는 욥의 신실한 태도와 3장 이후의 욥의 태도는 확연히 구분된다.

24) 사단과의 대화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발언(욥 1: 8; 2: 3)은 욥 1: 1에서 언급된 화자의 표현과 일치한다. 이것은 욥기 내에서 하나님의 입장이 화자의 관점이라는 것이다.

25) 욥 이야기 내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내용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 사단은 하나님과의 천상회의에 나타난 이후에 두 번 다시 등장하지 않으며, 사단은 욥 이야기가 전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이다.

26) 하 경택 역시 천상회의는 “욥의 고난의 원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한다. 참조 하 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연구」, 57쪽. 사단이 직접적 가해자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었다. 사단과 하나님과 회동하는 자리에서 욥의 불행은 씩이 트기 시작했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는 데서 시작한다.

27) 욥 2: 10을 보면 욥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욥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에게 닥친 불행에 대한 신앙 고백적 표현이다.



보게 될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천상회의와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벌어진다.

### 3) 갈등 [욥과 친구들]의 대화: 욥 3장 1절 - 31장 40절<sup>28)</sup>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에 이어서 나타나는 [욥과 친구들] 대화는 욥기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며, 대화의 성격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놓고 벌이는 논쟁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는 사건의 발단이라면 [욥과 친구들] 대화는 사건의 전개이다. 욥이 내뱉는 말은 친구들 발언과 비교될 때, 친구들 발언<sup>29)</sup> 역시 욥의 발언과 비교될 때 핵심이 각각 잘 드러난다. [욥과 친구들] 발언은 공격과 반론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기에,<sup>30)</sup> 이 틀 안에서 [욥과 친구들]의 발언을 살피겠다.

#### (1) 욥의 발언

세 친구들은 욥이 불행을 겪는 이유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욥은 친구들의 이러한 공격에 반론을 제기한다. 욥 이야기의 전체 흐름과 관련하여 욥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이 겪는 고난은 자신의 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까닭 없이 자신을 몰아 부친 것이라는 주장이며, 둘째는 욥 자신은 의인이라는 주장이다.

#### ① 고난의 원인: 하나님

불행이 닥쳤을 때 욥은 처음에는 인내하는 모습을 보인다(욥 1: 21; 2: 10)가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한다(참조, 욥 10: 4이하).<sup>31)</sup> 욥은 자신이 겪는 고통은

28) 엘리후의 발언은 욥의 세 친구 발언과 별 다른 내용이 없기에 논하지 않았다. 엘리후의 발언에 대해서 다음을 참조하라. 안 근조, 「지혜 말씀으로 읽는 욥기」, 235-237쪽.

29) 욥의 세 친구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공통된 생각과 전체를 가지고 있다.

30) 욥은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한 친구들에게 공개적으로 토론을 제안한다(욥 6: 24).

31) 이런 점에서 산문과 시문에 나타난 욥의 다른 모습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의 내면적 심리 변화를 보여준다. 포레스트(R. Forrest)는 욥의 인내자와 반항자 모습을 인간 실존에 내재하는 두 개의 얼굴에 비유한다. R. W. E. Forrest, "The Two Faces of Job: Imagery and Integrity in the Prologue," C. Craigie, Eslinger, Lyle M. - Taylor, J. Glen (eds.), *Ascribe to the Lord. Biblical and other Studies in Memory of Peter*, (Sheffield: JSOT Press, 1988), 385-398 쪽.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sup>32)</sup>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알지 못하는 욥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었다(욥 6: 4; 13: 18, 23; 19: 5-6; 27: 5-6). 악한 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 욥은 의문을 제기하며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공격한다는 반론을 편다(욥 21: 7-31). 이러한 욥의 주장은 욥 이야기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인정되어진다. 욥기에서 하나님도 화자도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욥기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욥의 잘못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음을 말한다.

② 고난 받는 의인 욥

욥 1장 1절에서 욥기의 화자는 우스 땅에 사는 욥을 소개하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라고 한다. 욥을 소개하면서 화자는 욥을 가리켜 의롭다고 하지 않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욥은 의인으로 알려져 있지만<sup>33)</sup> 욥기에서 욥을 의인이라 하는 이는 욥 자신뿐이며, 욥은 의인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주장한다(욥 6: 29; 12: 4; 13: 18; 27: 6; 29: 14).<sup>34)</sup>

32) 욥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자신과 다투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한다(욥 10: 2).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힐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주장한다(욥 10: 13). 욥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허물을 찾아서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욥 10: 14-15). 결국, 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그는 공평하지도 않고 자신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왜 자신에게 생명을 허락하였는지를 따지고 있다. 욥은 평안히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부수었다고 주장한다(욥 16: 12; 19: 6, 21).

33) 마소라 본문 욥기는 욥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지만 칠십인역은 욥을 의인으로 묘사한다. 화자의 발언인 욥 1: 1에서 마소라 본문은 욥을 의인(רַב־יָדַי צַדִּיק)라 하지 않지만 칠십인경은 원문에 없는 의인(δίκαιος 디카이오스)을 삽입하였다. 욥 1: 1 [마소라: רַב־יָדַי צַדִּיק] [바티칸: ἀληθινός ἀμεμπτος δίκαιος] [알렉산드리아: ἀμεμπτος δίκαιος ἀληθινός]; 욥 1: 8 [마소라: רַב־יָדַי צַדִּיק] [바티칸: ἀμεμπτος ἀληθινός] [알렉산드리아: ἀμεμπτος δίκαιος ἀληθινός]; 욥 2: 3 [마소라: רַב־יָדַי צַדִּיק] [바티칸: ἀκακος ἀληθινός ἀμεμπτος] [알렉산드리아: ἀμεμπτος δίκαιος ἀληθινός]. 칠십인경 사본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하나님의 발언인 욥 1: 8과 욥 2: 3에서도 마소라 본문에 없는 의인을 삽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본 및 계열 본문을 근거로 욥기를 주석한 안디옥 교부 크리소스톰은 그의 주석에서 욥을 의인으로 해석한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우 상혁, “마소라 본문 전통과 칠십인경에 따른 교부들의 욥기 주석,” 98-110쪽.

34) 김 재구는 화자와 엘리후의 발언을 통해서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음을 잘 지적한다(욥 32: 1; 34: 5). 김 재구, “욥기 1-3장: 욥기 전체를 주는 열쇠,” 『구약논단』 24집 (2007년 6월), 101-102쪽. 물론, 욥도 사람이 하나님과 견주어서 의롭지는 않다고 한다(욥 9: 2). 참조, 우 상혁, “마소라 본문 전통과 칠십인경에 따른 교부들의 욥기 주석,” 94-97쪽.

욥의 주장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은 적극 반대하며, 하나님 역시 욥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욥 1장 8절과 욥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소개할 때 화자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며, 하나님은 욥 40장 8절에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욥을 꾸짖기까지 한다. 이 구절은 욥이 자신은 아무런 허물이 없는 의인인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었기에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욥의 입장에 대한 하나님의 반론이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욥의 주장은 욥 이야기 내부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 (2) 친구들 주장

친구들 발언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세 친구는 각각 비슷한 내용을 말한다.<sup>35)</sup> 친구들 발언의 대화 상대는 욥이다. 친구들 발언은 대부분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욥을 공격하는 내용이다.

### ① 의로운 인생은 없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욥에 대하여 여자에게서 난 지는 의로울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욥 4: 12-21; 15: 14; 25: 4).<sup>36)</sup>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이 비록 의롭지는 않지만 욥기 화자의 서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자라는 것은 인정한다(욥 4: 6).

35) 수사학적 관점에서 욥 친구들의 발언을 분석한 클라인스는 욥의 세 친구들의 발언은 각각 구별되기도 하지만 죄와 고난의 인과 관계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D. J. A. Clines, "The Arguments of Job's Three Friends," D. J. A. Clines, D. M. Gunn and A. J. Hauser (eds.), *Art and Meaning*, (Sheffield: Sheffield University Press, 1982), 199-214쪽.

36) 하지만 욥 역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고 한다(욥 9: 2). 이는 자신의 발언과 모순되는 부분이다. 욥 친구들 발언을 분석하면서 클라인스는 욥 친구들 발언은 서로 미묘한 차이가 있음에도 신학과 논지에 있어서 일정한 유형과 일관성 있는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욥의 발언은 혼돈스럽고 경험적이고 그의 논지는 계속 변화한다고 지적한다. 욥 친구들 발언의 차이는 클라인스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엘리바스는 욥의 믿음을 언급하며 욥에게 위로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의도는 욥에게 희망과 인내심을 주기 위함이다(욥 4: 6; 5: 8). 빌닷은 욥과 그 자식들의 운명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욥에게 경고를 한다. 빌닷의 의도는 욥의 죄가 그의 아들들의 죄와 같지 않기에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다(욥 8: 5-6). 소발은 욥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촉구한다(욥 11: 6). 클라인스의 이러한 지적은 욥의 세 친구들 발언을 세밀히 보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욥 친구들 발언은 근본적 차이가 없고 욥을 비판하는 근거나 표현 방법의 차이라 할 수 있다. D. J. A. Clines, "The Arguments of Job's Three Friends," 209-210, 213쪽

② 심은 대로 거둔다: 악인 고난론

베스트만의 주장대로 친구들 발언의 논지는 불경한 자의 말로에 관한 것이다.<sup>37)</sup> 엘리바스는 고난을 받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며 욥의 고난은 정당하다고 한다(욥 4: 7-8; 22: 4-5, 19). 엘리바스는 악한 자의 처참한 말로를 장황하게 묘사하며, 이러한 것의 원인은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욥 15: 20-24, 27-36). 이뿐만 아니라 엘리바스는 욥의 죄(친족 재산 압류,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 권세 이용하여 거들먹거림, 과부와 고아 학대)를 열거하고 있다(욥 22: 6-10). 더 나아가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부정했다며 고발한다(욥 22: 12-14). 소발도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고난은 악한 행동에서 온다고 주장하고 욥에게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며 욥에게 반성의 기도를 촉구한다(욥 11: 6, 11, 13, 14). 이어서 소발은 하나님은 악인에게 진노를 퍼 부시며, 이것은 하나님이 악인에게 허락한 유업이라고 주장한다(욥 20: 23, 29). 즉, 악인의 안정은 일시적인 것뿐이며 의인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빌닷이 이해한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은 거두고 악한 사람은 뿌리치는 분이다(욥 8: 20-22).<sup>38)</sup> 세 친구들의 주장에 따르면 악인은 벌을 받기에 고난당하는 욥은 악인이다.<sup>39)</sup> 하지만 욥 1장 1절 욥 1장 8절 그리고 욥 2장 3절에서 화자와 하나님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자”라고 한 것에 미루어 볼 때, 욥 이야기 내부에서 세 친구들의 주장은 사실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욥과 친구들] 대화의 논점

욥은 친구들의 말이 자신에게 고통만을 안겨 주고, 그들에게서 어떤 지혜도 발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욥 12: 2-3; 13: 2, 4; 16: 2-3; 19: 2-3; 17: 10). 친구들은 자신들을 어리석게 보는 욥에게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고 반격한다(욥 11: 6-7; 15: 8-10, 17, 18; 18: 3). 이것은 욥과 친구들 발언이 지식과 지혜에 관한

37) C. Westermann, *The Structure of the Book of Job: A Form-Critical Analysi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1); *Der Aufbau des Buches Hiob* (Stuttgart: Calwer Verlag, 1977), 81-83 쪽. 이 점에서 클라인스도 동일한 설명을 한다. D. J. A. Clines, "The Arguments of Job's Three Friends," 206-209쪽.

38) 빌닷은 욥 18: 5-21절에서 악인의 종말을 설명하고 있다. 1. 제 피에 걸려 넘어지고(욥 18: 7). 2. 죽음의 공포가 엄습(욥 18: 11). 3. 죽을 병에 들고(욥 18: 13). 4. 집에 남아 있는 것이 없고(욥 18: 15). 5. 자손이 끊기고(욥 18: 19).

39) R. Rendtorff, *Introduction à l'Ancien Testament*, (Paris: Cerf, 1989), 420쪽.

논쟁임을 말한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꿈결에 들은 것(욥 4: 12-21)과 직접 본 것(욥 4: 8; 5: 3, 27)과 조상들로부터 들은 지혜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욥 15: 10, 17, 18).<sup>40)</sup> 빌닷 역시 조상들의 지혜를 들으라고 재촉한다(욥 8: 8, 10). 빌닷에게 있어서 조상들의 지혜는 삶의 기준이고 판단 척도이다. 소발은 “나의 깨닫게 하는 영”이 자신에게 대답할 말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한다(욥 20: 3).<sup>41)</sup> 이처럼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조상들의 지혜에 근거한다.<sup>42)</sup> 세 친구들과과는 달리 욥은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며, 노인들에게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한다(욥 12: 12). 욥에게 있어서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욥 28: 23).<sup>43)</sup> 욥과 세 친구들이 벌였던 논쟁은 욥이 당하는 불행의 원인과 고난을 주는 이유에 관한 문제이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고, 이에 사단이 하나님에게 충동질한 것이 욥의 불행의 시발이라는 사실을 이들 중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각자들 나름의 설명은 했지만 정답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에서 시작된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논쟁이었지만 승자 없이 끝난다. 결국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의 한계와 관련된 문제이다.<sup>44)</sup>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40) 이 모든 지혜가 무의하거나 틀린 것은 아니다. 욥 5: 2(“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의 내용은 나름대로 유익한 말이다.

41) A. Robert et A. Feuillet, *Introduction à la Bible*, (Tournai: Desclée et Cie, 1959), 648쪽.

42) 베스트만(C. Westermann)은 친구들이 불경한 자의 불행한 운명에 대해서 말할 때 이들은 개인적 경험과 민간 지혜 전통에 근거한다고 말한다. 베스트만은 더 나아가 불경한 자가 망한다는 이스라엘 민간 지혜 전통은 잠언(예, 잠 12: 7-21)을 통해서 전해졌다고 한다. C. Westermann, *The Structure of the Book of Job*, 83-84쪽.

43) 욥 28장은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실제 이 장은 세 친구들과 논쟁하는 욥의 다른 발언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에 욥 28장이 욥기 전체에서 나름의 기능이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부조화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욥기 안에 욥 28장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욥기서 해석의 또 다른 열쇠이다. 욥 28장은 1) 욥 28: 1-11 인간의 능력, 2) 욥 28: 12-22 인간의 한계, 3) 욥 28: 23-27 하나님만이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안다, 4) 욥 28: 28 지혜와 슬기,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은 인간은 아무리 땅 속 깊이 있는 광물도 찾을 수 있다며 인간의 능력을 치켜세운다. 2)는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지라도 지혜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3)은 인간은 지혜에 다다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고 한다. 4)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라고 한다. 욥 28장은 욥기 전체 이야기의 흐름과 관련이 있으며, 욥의 입에서 나온 것이지만 화자의 의도 곧 욥기의 화두를 내포하고 있다.

44) 뢰비끄(J. Lévêque)는 욥과 친구들 논쟁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친구들은 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말하였고, 욥은 알기 위하여 말하였다. J. Lévêque, “L’interprétation des discours de YHWH(Job 38,1-42,6),” W.A.M. Beuken (ed.), *The Book of Job*, (Leuven:

뒤따르는 [하나님과 욥]의 대화는 이 점을 명확히 한다.

#### 4) 절정 [하나님과 욥]의 대화: 욥 38장 1절 - 42장 6절

[하나님과 욥]의 대화를 해석할 때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과 욥]의 대화는 [욥과 친구들] 논쟁의 연장선에서 읽어야 한다. 둘째는 하나님의 발언(욥 38: 1 - 40: 2, 40: 6 - 41: 34)과 욥의 응답(욥 40: 4-5; 42: 2-6)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나님 발언은 그 발언에 대한 욥의 응답과 비교하여 볼 때, 욥 이야기 내에서 하나님 발언이 차지하는 역할과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욥]의 대화라는 제목을 붙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1) 하나님 발언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 욥에게 말씀하신다.<sup>45)</sup> 이미 욥은 여러 차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였기에, 욥의 간청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욥의 불행은 사단이 참여한 천상에서의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에서 시작하였다. 욥과 세 친구들이 불행의 원인을 알지 못하여 갑론을박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면 욥의 메시지는 분명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발언은 명쾌한 답변을 예상했던 독자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얼핏 별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독자들이 기대하였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건의 기원에 대한 명료한 답변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기, 그의 발언은 언뜻 뜬 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린다. 하지만 욥기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의 발언 속에 있다.<sup>46)</sup> 관건은 하나님 발언을 욥 이야기의 전체 흐름과 분리시켜서 그 의미를 찾으려 안 되며 욥 이야기가 전개해 나가는 줄거리 안에서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발언은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부분은 각각 욥의 응답이 뒤따른다. 먼저 하나님의 발언을 살핀 후 욥의 응답을 보겠다.

---

Peeters, 1994), 222쪽.

45) 안 근조는 폭풍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안 근조, 「지혜 말씀으로 읽는 욥기」, 183쪽

46) 하 경택도 하나님의 발언이 “욥기 전체를 조망하며 욥기의 신학과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한다. 하 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연구」, 223쪽.

① 하나님의 첫 번째 발언: 욥 38장 1절 - 40장 2절

하나님의 첫 번째 발언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서론(욥 38: 2-3)은 첫 번째 발언을 시작하는 부분이다. 본론(욥 38: 4 - 39: 30)은 수사이문문<sup>47)</sup>으로 된 질문으로 창조 사역과 자연의 섭리<sup>48)</sup>에 관한 것이며 첫 번째 발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결론(욥 40: 2)은 욥에게 답변을 촉구하면서 마무리한다.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 발언의 서론이다. 욥 38장 2-3절은 하나님의 첫 번째 발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발언의 서론적 역할을 하며 하나님 발언의 의도를 담고 있기에 욥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누가 지식도 없이 말로서 계획을 어둡게 하느냐사역(욥 38: 2; 사역).”

하나님의 발언은 [욥과 친구들] 대화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이 절에서 핵심이 되는 히브리어 단어 **עצה**(에차/계획)를 통해서 확인된다. 에차는 예언서와 지혜문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로 사람이나 하나님의 계획, 뜻, 의도 등을 표현한다.<sup>49)</sup> 욥 38장 2절에서 에차가 하나님의

47) 안 근조는 구약 성서에 사용된 신인 대화에서 수사이문문의 기능과 역할을 잘 지적하였다. 안 근조, 「지혜 말씀으로 읽는 욥기」, 92-96, 105-123쪽.

48) 욥 38: 4-7 땅의 기초; 38: 8-11 바다를 장악; 38: 12-13 새벽을 명령; 38: 14-15 광명; 38: 16-18 바다 속과 죽음의 그늘로 가는 문; 38: 19-21 빛과 어둠의 근원; 38: 22-23 눈과 우박; 38: 24 해가 뜨는 곳; 38: 28 동풍이 불어오는 곳; 38: 25 개울과 천둥, 번개가 가는 길; 38: 26-28 비를 내리는 이; 38: 29-30 얼음; 38: 31-33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 38: 34 구름에게 명령; 38: 35 번개에게 명령; 38: 36 강물 범람과 비 예보; 38: 37 구름; 38: 38 진흙덩이; 38: 39-40 사자; 38: 41 까마귀; 39: 1a 염소; 39: 1b-4 들사슴; 39: 5-8 들나귀; 39: 9-12 들소; 39: 13-18 타조; 39: 19-25 말; 39: 26 매; 39: 27-30 독수리.

49) 사람의 뜻이나 계획: 신 32: 28; 삿 20: 7; 삼하 16: 20; 17: 7, 14; 왕상 12: 13, 14; 사 19: 3; 렘 18: 18, 23; 19: 7; 49: 30; 시 1: 1; 14: 6; 33: 10; 잠 16: 30; 27: 9; 욥 5: 13; 10: 3; 21: 16; 22: 18; 29: 21.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 사 14: 26; 19: 17; 28: 29; 렘 32: 19; 49: 20; 50: 45; 시 33: 11; 107: 11; 잠 19: 21; 욥 12: 13. 사람의 뜻이나 계획은 특정 민족이나 집단의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하며(렘 19: 7; 49: 30), 악한 자의 계략을 가리킬 수 있다(렘 18: 18, 23; 시 1: 1; 잠 16: 30; 욥 5: 13; 10: 3; 21: 16; 22: 18).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구절 중 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렘 50: 45(“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무케 하리니라” [개역])에서 여호와의 도모(에차)와 여호와의 뜻(**מַחֲשָׁבָה** 마하사바)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여호와의 에차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마하사바는 갈대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킨다. 렘50: 45에서 에차는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계획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공감한다.<sup>50)</sup> 하지만 충분한 답변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욥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내러티브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는 욥 38장 2절의 예차의 의미는 욥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읽혀져야 한다.<sup>51)</sup> 그 해답은 [하나님과 욥] 대화에 앞서 진행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와 [욥과 친구들]의 논쟁에 있다. [하나님과 욥] 대화에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있고 [욥과 친구들] 대화는 욥이 고난당하는 원인을 따지는 논쟁이었다. 따라서 욥 38장 2절의 예차는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욥 38장 2절의 ‘말로서’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욥 38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예차를 어둡게 한 방법은 욥 38장 2절에 명시되어 있듯이 ‘말로서’이다. 이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발언이 [욥과 친구들] 논쟁에 중지부를 찍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욥 38장 2절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욥이 당하는 고통과 관련이 있음을 말한다. 욥 38장 2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무지한 말’로 예차를 어둡게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욥과 친구들이 불행의 비밀을 아는 양 논쟁하였던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무지한 말’은 ‘계획을 어둡게 한다’는 표현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 욥 38장 2절의 ‘어둡게 하다’의 의미는 욥 42장 3절의 ‘덮다’와 비교될 때 더 명확해진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어둡게 한다는 것(욥 38:2)은 곧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덮어버리는 자이다(욥 42:3). 하나님의 예차를 어둡게 한 욥과 세 친구들은 욥이 겪는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저런 말을 하였다. 결국 욥 38장 2절은 피조물의 인식 능력 곧 인간의 지혜가 깨달을 수 있는 인식의 범위-인간적 지혜의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sup>52)</sup> 하나님은 욥에게 많은 질문을 한다. 예를 들면, 내가 땅의 기초를

50) 레비끄는 욥 38:2의 예차는 인간 역사 구체적으로 개인의 삶에 드러나는 신적 행동이라고 강조한다. J. Lévêque, “L’interprétation des discours de YHWH(Job 38,1-42,6),” 207쪽. 그가 말하는 신적 행동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이다. 예차 자체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콕스 역시 욥 38:2의 예차는 인간의 삶이 펼쳐지는 피조물 세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리킨다고 지적한다. D. Cox O. F. M, *The Triumph of Impotence*, (Roma: Universita Gregoriana Editrice, 1978), 120-123쪽.

51) 욥 38:2의 예차는 안근조가 지적하듯이 창조 세계의 비밀과 하나님 섭리의 원리를 가리킨다. 안 근조, 「지혜말씀으로 읽는 욥기」, 186쪽. 참조, 하 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233쪽.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욥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혹은 적어도 무엇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52) 하 경택과 안 근조 모두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였다. 하 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놓을 때 네가 보았느냐(욥 38: 4).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욥 38: 5) 등이다.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는 질문은 욥뿐 아니라 피조물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니오'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성격이다. 하나님은 욥에게 왜 창조 사역에 관한 질문을 던질까? 이러한 질문이 욥 이야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과 욥] 대화에 나타난 이러한 질문의 의도 역시 선행하는 [욥과 친구들] 대화의 연장선에서 읽어야 한다. 욥 이야기에서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결정 -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치는 것을 허락한 것 - 을 알지 못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욥과 그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놓고 갑론을박하였다.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sup>53)</sup> 하나님이 욥에게 던진 질문은 피조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질문이 의도하는 바는 욥이 하나님이 던진 창조 사역과 자연의 섭리에 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없듯이, 욥과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까닭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② 하나님의 두 번째 발언: 욥 40장 6절 - 41장 34절

하나님의 두 번째 발언은 베혜못(욥40: 15-24)과 리워야단(욥 41: 1-34)에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한다.<sup>54)</sup> 첫 번째 발언처럼 두 번째 발언에서도 하나님의 첫 질문(욥 40: 7-8)이 중요하다.<sup>55)</sup>

“네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나를 악하게 보고 나의 결정(~~우주~~)을 폐하려느냐?(욥 40: 8; 사역)”

242쪽. 안 근조 「지혜말씀으로 읽는 욥기」, 97, 221쪽.

53) 하나님의 발언에는 '네가 아느냐는 표현이 계속 나타난다(욥 38: 4, 5, 12, 18, 21, 33; 39: 1, 2).

54) 하나님의 두 번째 발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욥 40: 9-10 하나님의 팔과 하나님의 소리; 40: 11-14 교만한 자와 악한 자 누르기; 40: 15-24 베혜못; 41: 1-34 리워야단. 하나님 발언에 언급된 베혜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안 근조, 「지혜말씀으로 읽는 욥기」, 190-199쪽.

55) 안 근조는 욥의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두 번째 발언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어서 그는 욥의 첫 번째 대답 바로 뒤에 등장하는 베혜못과 리워야단은 욥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며, 욥을 도전과 격려와 성숙한 깨달음으로 초청하기 위한 교육적 도구라고 한다. 이러한 베혜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이해는 욥 이야기의 주제와 의미를 풍성하게 만든다. 안 근조, 「지혜말씀으로 읽는 욥기」, 226-227, 245-263, 특히 259-260쪽.

욥 40장 8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는 욥 40장 8절 מִשְׁפָּט (미쉬파트/판단, 법)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하며, 둘째는 욥 40장 8절의 의미를 욥 이야기의 전체 흐름 안에서 읽어야 한다.<sup>56)</sup> 재판, 판단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 שָׁפַט(사파트/판단하다)에서 파생된 미쉬파트는 재판이나 법도를 가리킨다. 재판이나 법도는 판단적 의미를 기초로 하는데, 욥 40장 8절에서 미쉬파트는 하나님의 ‘판단이나 결정’을 의미한다. 욥 40장 8절에서 하나님의 미쉬파트를 폐하려 하였다 것은 곧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무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점에서 욥 38장 2절의 예차와 욥 40장 8절의 미쉬파트는 공유하는 의미가 있다. 예차와 미쉬파트는 각각 하나님의 첫 번째 발언과 두 번째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인 셈이다.<sup>57)</sup> 이 두 단어는 하나님 발언의 의도가 함축되어 있으며 욥기를 해석하는 방향을 결정한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세계는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기에,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과 욥] 대화는 [하나님과 사단]과 [욥과 친구들] 대화에 이어서 나타나기에 욥이 당한 고난과 관련이 있으며, [욥과 친구들]간의 논쟁에 대한 판결적 답변이다.<sup>58)</sup> 이와 같은 설명은 [하나님과 사단] - [욥과 친구들] - [하나님과 욥]의 대화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시키며, 욥 이야기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만약 하나님이 답변을 한다면, 사단과의 내기 때문에 욥이 불행을 겪는다고 설명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욥기 내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는 욥과 친구들에게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욥 이야기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결정된 일은 피조물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56) 앞서 [욥과 친구들] 논쟁에서 살펴보았듯이 욥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였다. 욥 40: 8의 하나님 발언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콕스도 욥의 문제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이라고 한다. D. Cox O. F. M, *The Triumph of Impotence*, 136쪽.

57) 콕스는 욥 40: 8의 미쉬파트는 욥 38: 2의 하나님의 예차와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하 경택(256-259쪽) 역시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의 첫 번째 발언과 두 번째 발언에서 각각 짝을 이루며, 하나님 발언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어임을 지적하였다. D. Cox O. F. M, *The Triumph of Impotence*, 140쪽. 일만(K-J. Illman)은 욥 38: 2의 욥 38: 2의 예차는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욥 40: 8의 미쉬파트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한다. K-J. Illman, "Did God Answer Job?" S. Klaus-Dietrich - A. Matthias (eds.), *Lasset uns Brücken bauen...*,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98), 284쪽.

58) 하 경택은 하나님의 발언을 욥의 탄식, 구체적으로 욥기 3장에 대한 응답으로 설명한다. 하 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222-264, 특히 262쪽.

섭리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정은 인간이 경험하고 습득하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첫 번째 발언처럼 두 번째 하나님 발언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며 인간의 앎과 능력은 그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9)</sup> 욥이 얻은 깨달음은 하나님 발언에 대한 욥의 답변을 통해서 더 명확해진다.

(2) 욥의 답변

① 욥의 첫 번째 답변: 욥 40장 4-5절

욥의 첫 번째 답변 역시 하나님의 첫 번째 발언의 틀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욥 이야기의 전체 흐름 안에서 읽어야 한다.<sup>60)</sup> 욥 40장 4-5절은 욥 이야기에서 욥이라는 인물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준다.

“나는 부족한 자이다. 어찌 내가 당신께 답변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나의 손을 나의 입술에 덮는다(욥 40: 4; 사역).”  
 “내가 처음에는 말하였다. 하지만 두 번은 답변하지도 더 하지도 않을 것이다 (욥 40: 5; 사역).”

하나님이 한 질문에 대해서 욥은 답변할 수 없었다. 욥은 창조 세계와 그 질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피조물 인간은 알 수 없다. 인간의 삶도 창조 세계의 한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이기

59) 하나님의 발언은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안 근조는 하나님 발언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 경향을 ‘견책(reproach)’으로 보는 시각과 ‘위로’로 보는 시각으로 정리하였다. 전자는 하나님 발언을 불평만 하는 욥의 태도를 교정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후자는 하나님 발언의 본질을 위로 또는 구원으로 규정한다고 하였다. 안근조는 하나님 발언을 지혜전승에 자리매김하며 하나님 발언의 본질은 ‘계몽’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안 근조는 비판하기를, 견책적 관점은 하나님 발언을 예언 전통의 산물로 결론짓게 하며 위로적 관점은 제사장적 구원신학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예전전승층에 본문을 위치시킨다고 하였다. 안 근조, 「지혜 말씀으로 읽는 욥기」, 84-89, 91-100쪽. 하 경택 역시 하나님 발언은 욥으로 하여금 창조와 세계 질서에 대한 욥의 지식과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한다고 한다. 참조 하 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연구」, 239, 242, 256쪽. 레비끄 또한 하나님의 발언은 욥으로 하여금 인간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한다고 본다. J. Lévêque, “L’interprétation des discours de YHWH(Job 38,1-42,6),” 219쪽.

60) 욥의 첫 번째 답변이 순서상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발언과 하나님의 두 번째 발언 사이에 있지만, 욥의 첫 번째 답변은 욥의 두 번째 답변과 함께 보아야 한다. 욥의 첫 번째 답변은 길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발언을 쉬어가게 하는 역할 정도이다. 욥의 첫 번째 답변과 두 번째 답변에서 근본적 차이를 발견을 하기는 어렵다.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 발언 전에 욥은 그의 친구들과 하나님의 예차를 열심히 설명을 하였다. 피조물 세계의 기초와 그 질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기에 피조물 인간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욥은 뒤늦게 깨닫게 된 셈이다. 폭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발언을 듣고 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 욥 40장 4-5절이다. 결국 이 구절은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자신의 고난을 부당하게 여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② 욥의 두 번째 답변: 욥 42장 2-6절

하나님의 두 번째 발언 다음에 등장하는 욥의 답변은 욥의 잘못이 무엇인지보다 더 정확히 묘사한다(욥 42: 2-6). 욥의 두 번째 답변에서 욥기 전체 메시지와 관련된 구절은 욥 42장 2-3절이며, 욥 42장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일어난 욥의 변화가 압축되어 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욥 42: 2; 사역).”

“누가 지식도 없이 계획을 가렸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기이한 것을 말하였습니다(욥 42: 3; 사역).”

욥 42장 2절은 욥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계획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절의 **רָצוּן**(메지마/계획)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메지마를 통하여 욥 42장 2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생각도 이룰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과 욥]의 대화에서 욥 42장 3절의 예차는 욥 38장 2절의 예차와 동일한 것을 지칭한다. [하나님과 욥] 대화의 요지는 욥 38장 2절의 하나님 발언과 욥 42장 3절 전반부의 욥 발언과의 관련성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두 구절은 문장 형태에 있어서도 비슷하며, 욥 38장 2절은 하나님이 욥에게 처음 던지는 말이라면 욥 42장 3절 전반부는 의문문 형태로 된 하나님 발언에 대한 욥이 보인 반응의 핵심이다. 욥 38장 2절에서 하나님은 지식도 없이 예차를 어둡게 하냐고 묻고, 욥 42장 3절에서는 욥이 지식도 없이 예차를 가린 자가 누구냐고 답한다. 욥 42장 3절 전반부는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린 자는 바로 나라는 것을 말하며, 욥 42장 3절 후반부에 의해서 그 의미가 보다 더 분명해진다. 욥 42장 3절 후반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 중 하나는 욥의 ‘내가

말하였다'이다. 욥이 언제, 왜, 무엇을 말하였는가?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욥은 고난을 주는 하나님께 불평하였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하나님과 욥] 대화 전에 있었다. 결국, 욥 38장 2절과 욥 42장 3절은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전제로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욥 42장 3절에서 고백하기를 욥은 자신이 알 수 없고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말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곧 욥기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로 구체화 된 하나님의 섭리이다. '말하였다'와 더불어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동사는 '알다와 '깨닫다'이다. 욥이 말한 것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것이다. 욥 42장 3절에서 욥이 고백하기를 자신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기이한 일'(תִּינִיָּה/닐라오트)을 말하였다고 한다.<sup>61)</sup> 욥 42장 3절의 닐라오트 역시 욥 이야기의 전체 흐름에서 해석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에서 나타난 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욥이 당한 불행과 관련된 것이다.<sup>62)</sup>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에서 야기된 욥의 불행에 대해서 [욥과 친구들]은 그 원인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이어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듣고 이제야 내가 알았다고 한다.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준 이유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을 설명하지 않았다.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의 운행 질서와 섭리를 피조물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욥 이야기는 고난당하는 욥을 통하여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지적한다.

#### 5. 마무리 내레이션: 욥 42장 7-17절

결말에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욥처럼 말하지 않았기에 욥을 통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한다(욥 42 7-9).<sup>63)</sup> 욥은 이전보다 갑절 많은 재물을 얻고 자녀

61) תִּינִיָּה는 욥기에서 네 번(욥 5: 9; 37: 5, 14; 42: 3) 사용되며 모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가리킨다.

62) 안 근조는 하나님의 발언을 통하여 욥이 깨달은 것은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섭리인 것으로 본다. 안 근조, 『지혜말씀으로 읽는 욥기』, 199쪽. 욥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깨달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63) 욥과 그 친구들 발언을 비교해 볼 때, 결정적 차이는 지혜의 근원에 대한 것이다. 욥은 하나님을 지혜의 근원으로 본 반면, 그 친구들은 조상들이나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또 다른 설명은 욥 43장 6절에서 욥이 회개를 하였다는 점이다. 하 경택은 욥 42: 6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1)

들도 다시 얻는다(욥 42: 10-15). 그 후 욥은 손자 사대를 보고 죽는다(욥 42: 16-17). 결말 내레이션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에 대한 간접적 언급이다. 화자는 욥이 경험한 불행을 하나님이 주었다고 한다(욥 42: 11).<sup>64)</sup> 욥기는 욥이 당한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셈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알려질 수 없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에 대한 암시적 해설이다.

## 6. 나오는 말

욥 이야기의 처음과 끝은 내레이션으로, 그 사이에는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몇몇 등장인물의 대화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내레이션과 각각의 대화는 서로 이야기 논리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논리를 쫓아가면서 욥 이야기를 읽으려고 하였다. [하나님과 사단]의 만남에 의해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쳤을 때 욥의 첫 반응은 하나님이 복을 줄 수도 있고 화를 줄 수도 있다며 인내한 모습을 보이지만(욥 1: 21; 2: 10), 욥은 곧 돌변하여 고난을 준 하나님에게 항의한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욥 자신의 죄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반면<sup>65)</sup> 욥은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며 자신의 고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이 불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sup>66)</sup> [하나님과 욥]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며 모든 피조 세계는 자신의 질서 아래 있다고 한다. 이는 욥이 당한 고난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았다. 욥 이야기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는 천상의 일 곧 하나님의 섭리로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

회개하는 욥, 2) 깨달음을 얻는 욥, 3) 위로 받는 욥의 모습으로 정리한다. 하 경택은 욥의 이러한 세 모습은 본문 자체가 해석의 여지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세 해석의 공통점은 “욥이 사고의 변화”를 겪는 것이라고 한다. 하 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연구』, 272-273쪽. 김 재구는 욥의 회개는 스스로 의롭게 여긴 것을 뉘우친 것이라고 한다. 김 재구, “욥기 1-3장: 욥기 전체를 푸는 열쇠,” 103쪽.

64) 리베끄는 욥기 내에서 사단의 역할을 논하면서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에 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J. Lévêque, “Le sens de la souffrance d’après le livre de Job,” *Revue théologique de Louvain* 6 (1975) 442-444쪽.

65) 욥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욥기가 상정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66)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꾸짖는다“네가 의롭게 되고자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욥 40: 8; 사역).”

경외하는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인간이 당하는 불행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은 아니라는 것을 유추할 수는 있다.<sup>67)</sup>

## 7. 참고문헌

- 김 재규, “욥기 1-3장: 욥기 전체를 푸는 열쇠,” 『구약논단』 24집 (2007년 6월), 92-106쪽.  
안 근조, 지혜말씀으로 읽는 욥기, (서울: 한들출판사, 2007).  
우 상혁, “마소라 본문 전통과 칠십인경에 따른 교부들의 욥기 주석,” 『구약논집』 4집 (2008년 12월), 94-110쪽.  
하 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연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6).  
하 경택, “욥과 욥기의 문제: 욥기의 연구사에 관한 소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1집 (2004년), 47-76쪽.  
Brenner, A., *Job the Pious? The Characterization of Job in the Narrative Framework of the Book*, JSOT 43 (1989), 337-52쪽.  
Cox O. F. M, D., *The Triumph of Impotence*, (Roma: Universita Gregoriana Editrice, 1978).  
Grégoire le Grand., *Morales sur Job*, (Sources Chrétiennes 32bis) (Paris: Cerf, 1952, 1989).  
Clines, D. J. A., “The Arguments of Job's Three Friends,” D. J. A. Clines, D. M. Gunn and A. J. Hauser (eds.), *Art and Meaning*, (Sheffield: Sheffield University Press, 1982), 199-214쪽.  
Clines, D. J. A., *Job 1-20* (Dallas: Word, 1989).  
Chrysostome, J., *Commentaire sur Job: Tome I (Chapitres I-XIV)*, (Sources Chrétiennes 346) (Paris: Cerf, 1988).  
Dell, K. J., *The Book of Job as Sceptical Literature*, (Berlin: Walter de Gruyter, 1991).  
Domisch, L., “The Book of Job and Ricoeur's Hermeneutics,” *Semeia* 19 (1981), 3-21쪽.  
Karl-Johan, Illman., “Did God Answer Job?,” S. Klaus-Dietrich - A, Matthias (eds.), *Lasset uns Brücken bauen...* (BEATAJ 42),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98), 275-285쪽.  
Lévêque, J., “Le sens de la souffrance d'après le livre de Job,” *Revue théologique de Louvain* 6 (1975) 438-459쪽.  
Lévêque, J., “L'interprétation des discours de YHWH(Job 38,1-42,6),” W.A.M. Beuken (ed.), *The Book of Job*, (Leuven: Peeters, 1994), 203-222쪽.  
Habel, N. C., *The Book of Job*, (Lodon: SCM Press, 1985).

---

67) 의인과 경외하는 자는 공통의 의미도 있지만 구별해야 한다.

- Marguerat, D. et Bourquin, Y., *Pour lire les récits bibliques* (Paris: Cerf, 1998).
- de Saussure, F.,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 Rivages, 1916, 1995).
- Witte, M., "The Greek Book of Job," T. Kruger, M. Oeming, K. Schmid and C. Uehlinger, (eds.), *Das Buch Hiob und seine Interpretationen*, (Zurich: Theologischer Verlag Zurich, 2007), 33-54쪽.
- Forrest, R. W. E., "The Two Faces of Job: Imagery and Integrity in the Prologue," C. Craigie, Eslinger, Lyle M. and T. J. Glen (eds.), *Ascribe to the Lord*, (Sheffield: JSOT Press, 1988), 385-398쪽.
- Rendtorff, R., *Introduction à l'Ancien Testament*, (Paris: Cerf, 1989).
- Ricoeur, P., *Temps et récit 1*, (Paris: Seuil, 1983).
- Robert, A. et A. Feuillet, *Introduction à la Bible*, (Tournai: Desclée et Cie, 1959).
- Bar-Efrat, S., *Narrative Art in the Bible*, (London: T & T Clark International, 1989, 2004).
- Westermann, C., *The Structure of the Book of Job*,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1).

## 검색어

욥기  
내러티브  
마소라 본문  
하나님의 섭리  
의인



# Is Job a suffering just?

**Sang Hyuk WOO**, T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Anyang University

There have been many commentaries on the book of Job. The studies which have been done until now mostly have focused their attentions on the reception history of text or redactional history, etc. In this paper, exploiting the narrative analyse that is already used successfully in the field of biblical study, we try to uncover the message of the book of Job which might be delivered to the reader. F. de Saussure, the linguist, makes a difference between signifiant and signifié. The second one is concept and the first one is the sign that conveys the concept with sound; a concept cannot exist without sound.

This theory may apply to narrative analyse. It is initially important to know how a story is made to find out a meaning of the story in the narrative analyse. The plan of a writer appears in the structure of a story is called plot, which determines how a story is to develop. According to our examination, the plot of the book of Job consists of five steps: background – development – conflict – climax – conclusion. Each step enter into a connection with one another tightly. Without difficulty, a reader can detect a stream of story which pass through all of steps; that can be called a logic of narrative which gives the story a coherence and a cohesion. In the background, a narrator introduces Job who is blameless, upright, fearing God, and turing away from evil.

A development of story of Job begins in the council of God and Satan where the reason for suffering of Job is originated. In the conflict Job and his friends debate why Job is in distress. But they do not agree with one

another. Soon afterward God speaks Job. The key to solve the complicated story of Job lies in the discours of God. Though God did not explain the content of the council of heaven, Job could realize something finally. A human cannot understand the plan of God. That might be what the readers can obtain.

### **Keywords**

Job

Narrative

Masoretic Text

Providence of God

Just

■투고일: 2010년 12월 120일

■심사일: 2011년 1월 30일

■게제확정일: 2011년 2월 21일